

특별인터뷰 **고조흥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理念 달라도 協助해야”

최대 현안문제 교통난 해소 도시철도나 경전철 연결 절실

고조흥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천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교통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포천 지역에서 서울이나 의정부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물류비용 증가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 지적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철도나 경전철 등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국회로부터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포천시의 현안문제를 위해 하기 위한 선출직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더욱 중요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에 따라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모든 선출직 오피니언 리더들이 독자적으로 현안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공과 사는 구분하고 생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주민을 대신해 일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행정에 대해 충고를 해 달라는 질문에 고 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다소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외부평을 듣고있다”면서 “공무원들은 공(公)이나 관(官)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세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조흥 국회의원과 인터뷰는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기간인 관계로 서면 인터뷰로 실시했다.

▶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는

지난해 5.30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다른 지역 의원들보다 1년 정도 늦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1년을 좀 더 지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법률지원단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활약하면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 비판 및 적절한 대안제시로 정도로 가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한 바 있다. 지역 활동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지역구인 포천시와 연천군의 제반 문제점을 찾아내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풀어주는 정책 활동을 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 포천시의 분야별 현안문제와 국회의원의 역할

포천시의 지역현안문제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 경제, 농촌문제 및 노인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한다. 포천지역은 서울 의정부 등에서 관내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현상이 심각하다. 그에 따라 각종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도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 인근 지역인 의정부, 동두천, 연천 등은 자동차도로 외에도 전철 등 철도가 운영되고 있어 교통 혼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포천시에는 철도 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오로지 자동차 도로를 이용한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제되는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교부, 경기도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국회로부터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포천시에 도시철도 또는 경전철 등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건교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청 등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철도가 건설되도록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역의 열악한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규제완화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입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축협동조합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할 필요도 있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화작물 직교역을 확대하는 등 각종 농축산발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천지역의 높은 실업률, 농촌의 고령 노인들의 증가가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해 없는 친환경 기업이나 관광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포천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출직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

과거 우리 지역의 선출직 오피니언 리더들도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천시가 더욱 중요하고 살



고조흥 국회의원은 포천시의 최대현안 문제는 교통난이라고 지적하고 도시철도나 경전철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좋은 자연친화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그것에 따라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리더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 개인적인 의욕만으로 이끌어지는 간단한 사회가 아니다. 모든 선출직 오피니언 리더들이 독자적으로 각종 현안문제에 접근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생각과 이념,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선출직이 개인의 영광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각종 현안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포천시 행정에 대해 충고를 한다면

포천시의 행정이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조언을 한다면 첫째로, 포천시의 행정이 다른 지역과 달리 다소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외부평을 듣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공(公)이나 관(官)의 입장에서 민(民)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세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여건, 빈부의 차이, 직업의 차이 등에 따른 무의식적인 차별행정이 아닌 공평하

고도 화합적인 겸손한 처신과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로, 공무원들의 자세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민원이나 사업에서 ‘안된다’거나 ‘못한다’ 하는 소극적·부정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어떤 일을 새롭게 만들고 개척하는 일은 담당자 자신에게 힘들기도 하고 귀찮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있고, 그가 나를 필요로 하기에 내가 존재하고 나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세만 있다면 포천시의 행정은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시민들 모두가 서로를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서로 좋은 말만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할 것이다.

허승원 기자
form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① 포천시 提案제도 있으나 마나

참여의식 부족 적극운영 의지 결여

시정반영 행정의 능률화 경비절감은 말 뿐

포천시가 행정의 능률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년 동안 ‘공무원 혁신제안’이란 명칭으로 제안된 건수는 모두 124건, 올 9월말 현재 ‘생각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건수는 200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행정에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124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금상과 은상, 동상은 수상자가 없고 장려상 수상자 5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그나마 장려상을 수상자들의 제안 역시 행정에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공무원 제안제도 취지

공무원 제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창안을 장려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경비절감 효과 등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사기양상을 통해 시정발전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포천시 제안규칙에 의하면 제안 내용은 과제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제안, 시민 생활편의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혹은 행정의 능률향상 및 현저한 예산절감 방안,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 일반제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담당관 실·과·소·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 등이다.

제안된 안건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결과 창의성과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의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착안상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은 물론 특별승진 및 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창안에 대한 특허, 실용

실안 등의 출원권과 등록권리는 포천시가 승계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할 날로부터 5년간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제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모 공무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직무와 관련된 내용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 효과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안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직원은 업무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제안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합리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제안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착안상으로 구분해 시상을 실시한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비롯한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특별승진이나 승급된 사례가 전혀 없다.

이런 원인에 대해 관계자는 “좋은 제안내용이 없기 때문에 장려상 외에는 금상이나 은상, 동상 수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제안내용에 대한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인센티브가 너무 미흡하다고 한다. 또 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제안심사가 공직사회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제안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심사 기준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는다